

“통장 할 사람 누구 없소”

광주 서구·광산구 구인난에 현수막 설치 등 모집 ‘안간힘’ 주택가 등 활동 반경 넓은 곳 ‘기피’... 열악한 처우도 원인 길게는 1년... 복지서비스 공백에 행정기관·주민 모두 피해

“통장님을 모십니다.”

광주시 서구와 광산구 일부 지역이 지방자치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통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원자를 모집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통장 모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잇따른 재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최소 단위 복지서비스 공백이 우려된다.

28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771개 통가운데 통장이 없는 곳은 20개로 이 가운데 8개는 1년여 가까이 장기 결원 상태다. 수치상 결원율은 한 자리 숫자를 넘지 않지만, 기존 공백과 임기만료(2년)와 재선임 과정의 사자를 고려한다면 결원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는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첨단지구의 경우 1동 3곳, 2동 2곳에 통장이 없는 상황이다. 첨단 1·2동은 주민 대다수가 오피스텔, 원룸 등 단기 거주민으로 통장 업무를 수행할 만한 주민을 찾기 어렵다는 게 광산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420개 통 가운데 6곳이 공석인 서구 역시 통장 구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구 상무 1동과 화정 4동은 지난 11월부터 통장을 찾고 있지만 3차례 재공고에도 단 한명의 후보자 등록이 없었다.

이 같은 통장 구인난의 원인으로는 업무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업무 난이도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통장은 월 급여 30만원과 회의 수당 4만원, 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발로 뛰는 통장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는 처우가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업무반경이 넓지 않은 아파트단지는 통장 모집이 쉬운 반면에 노후주택가와 원룸·오피스텔 밀집 지역은 그 보수에 희망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원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출입구에 설치된 보안장치로 인해 통장업무 수행하기 어렵고 과거와 달리 주민들 사이 유대관계가 적다 보니 통장이 가정을 방문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통장 공백사태에 자치행정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은 민원처리 등 서비스에 애를 먹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의 전·출입을 직접 확인하고, 민방위훈련 통지서를 배부하는 등의 업무를 인근 통장에게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어려워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경우도 허다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행정기관과 주민들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통장의 부재로 행정기관과 주민들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긴급한 민원이나 도로 정비, 쓰레기 문제 등 시급한 사안의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겨울안개 속을 달린다 28일 오전 한 시민이 겨울안개가 자욱한 광주시 서구 서창동 영산강변을 달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인권교육 받은 학생이 타인 더 존중”

전남교육청 학생·학부모·교사 설문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타인을 더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은 28일 '2020 전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남 학생의 인권 현황을 확인하고 학생인권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뤄졌다.

초등학교의 77.6%, 중학교의 76.8%, 고등학교의 74.7%가 학생인권교육을 이수했으며, 학생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

생보다 학교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정도가 높았다.

또 모든 학교 학급에서 학교의 학생권에 존중이 높아질 때마다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떤 학생인권 영역이 가장 침해받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초·중·고 학생 모두 '코로나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답변이 초등학생 49.6%, 중학생 46.2%, 고학생 34.8% 등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14.4%는 여가 및 문화활동이 침해받고 있다고 답변했고, 중학생의 27.4%, 고

등학생의 32.3%는 학습권 침해를 꼽았다.

반면 학부모·교사의 경우 학습권, 여가 및 문화활동이 침해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등학생 보호자의 31.1%는 학습권이, 25.4%는 여가 및 문화활동이 침해받았다고 응답했고, 중·고등학생 보호자의 27.7%는 여가 및 문화활동이, 27%는 학습권이 침해받았다고 답변했다. 또 초등 학교 교사의 31.5%, 중·고등학교 교사의 21.6%는 학습권이 침해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병삼 전남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연구내용을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환경 10대 뉴스' 선정

한빛원전 안전성 논란 기록적 폭우 영산강 죽산보 해체

황룡강 장륙습지 습지보호구역 지정 포스코 광양제철소 안전사고 1회용품 사용증가

광주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황룡강 장륙습지 습지보호구역 지정, 한빛원전 안전성 논란, 기록적인 폭우,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 등 올해 환경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잇따랐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이 28일 환경분야 이슈를 모아 '2020년 광주·전남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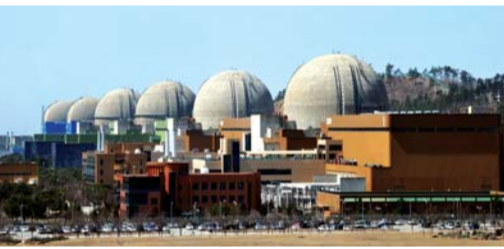
◇황룡강 장륙습지 습지보호구역 지정-환경부는 이달초 광주시 장륙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장륙습지는 대한민국 1호 도심 습지로 영산강과 생태적 연결통로를 형성하고 습지 원형이 잘 보전된 도심 내 하천 습지로 꼽힌다.

◇한빛원전 안전성 논란-한빛원전은 올해 1호기 저압급수기 누설, 2호기 원자로 계측기 안내관 미세누설, 5호기 신규 증기발생기 시험가동 중 밸브 이상으로 원자로 정지 등이 발생하며 안전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록적인 폭우-올 여름 광주와 구례 등 영산강 삼진강유역권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영산강 지류인 나주 문평천 제방이 무너지는가 하면 삼진강이 범람하여 구례 지역 피해도 유래 없이 컸다. 광주·전남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1회용품 사용증가-코로나19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했고, 온라인 쇼핑과 음식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1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했다. 재활용품 배출량이 전년대비 20% 가량 증가했고, 광주 5개구 재활용선별장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안전사고-지난 11월 포스



한빛원전



영산강 죽산보

코 광양제철소에서 배관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세 명의 사망했다. 지난해 영산강 침수 사고, 근무지 추락사고, 연구동 폭발사고 등으로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중대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밖에도 환경단체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보 처리방안 결정 지체 ▲무분별한 공동주택 등으로 인한 도시 난개발 ▲여수 들산 산림훼손 및 해안환경 파괴와 부실한 원상복구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선언 ▲광주전 국가하천으로 관리 시작과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추진의 문제 등을 올해의 환경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관 역사자료 수집

유은총동문화 및 동문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2021년 5월 26일에 100주년 기념관 개관에 맞춰 14만 동문들의 소중한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100년사 연감 제작을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은가족 및 동문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및 교육 발간 책자

- 학교 교사(校史), 학교 요람, 학교연혁지, 교육계획서, 학교문집, 교육활동집
- 새교육 등 교육관련 각종 잡지, 학교 신문, 교지, 학교 발행 간행물 등
-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부교재 등

기록자료

- 사진, 회화, 앨범, 영상자료, 졸업식, 입학식, 운동회 등 각종 행사 사진 및 자료
- 학교 배경의 개인 기념 사진이나 그림, 졸업 앨범 및 우승 트로피, 메달, 상장
- 학습지도안, 학급경영록, 시험지 및 답안지, 성적표, 통지표, 학교일지 등

학교 물품과 서류

- 졸업장, 수료증, 급여 봉투, 고지서, 영수증
- 학교 상징물, 교기, 교가, 교훈, 배지, 상장함, 깃발
- 각종 교구 및 기자재, 타자기, 초기형 컴퓨터, 환등기 등
- 운동회 용품, 호루라기, 매스게임 물품, 모의 수류탄 등

학생물품

- 교복, 체육복, 교련복, 이름표, 모자, 가방, 주산, 학생증, 교표, 도서관 대출증
- 도시락, 일기, 방학생활, 학급 문집, 동아리 문집 등
- 기타 자료 등

접수처

광주동성고등학교(광주상업고등학교) 행정실 062)670-4512,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062)670-4532

광주동성고(광주상고), 광주여상고, 광주동성중, 광주동성여중

학교법인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

광주 병설유치원 4곳 내년 1년간 휴원

원아 감소·코로나 여파

광주 지역의 신생아 감소가 현실화하고 코로나19로 여파로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병설유치원이 일시적 휴원에 들어간다.

광주시교육청은 중앙초·월곡초·동초·치평초 병설 유치원 4곳에 대해 내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간 휴원을 결정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원아 모집 결과 중앙초·월곡초 병설유치원은 각 0명, 동초 병설유치원은 2명, 치평초 병설유치원은 3명에 불과해 학급 운영이 불가능해 휴원을 결정했다. 원아 부족으로 병설유치원을 휴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선 초등학교와 함께 운영되는 병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에 비해 급식 운영이 다소 열악하고 연명별 학급 운영이 어려워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기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133개 공립유치원 중 병설유치원은 121곳이고, 단설유치원은 12곳이다. 특히 공립유치원의 90%(121개)이상을 차지하는 병설유치원 가운데 19곳(15.7%)이 원아수 10명 미만의 미니유치원들이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원아 10명 이하 병설유치원을 인근 유치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교육시민단체에서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과 모순된다며 반대에 통폐합이 보류된 상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 지역의 경우 신생아 수가 매년 1000명 가까이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들이 등원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상태라면 앞으로도 휴원하는 병설유치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